

저흡수 나일론수지 국산화

동양나이론, 1000톤 본격 생산 ... 수요증가 전망

내열성 기계적 강도 및 전기적 특성이 우수한 반면, 흡수율이 높아 개발이 시급했던 저흡수 나일론 수지가 개발돼 국산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동양나이론은 3년간의 연구를 거쳐 최근 저흡수 나일론수지를 개발 11월부터 본격 시판할 예정이다. 동양나이론은 1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사출용부문에 사용되는 저흡수나일론 수지를 비강화타입과 유리섬유강화타입 미네랄강화타입으로 나눠 생산판매할 예정인데, 수요기업들이 경제성 및 위험 부담 등을 이유로 현재는 활발한 구매는 없으나 향후 큰폭의 수요시장이 예상된다.

나일론 수지의 대체품으로 사용될 저흡수 나일론수지의 가격은 KG당2200~2500원선으로 나일론수지에 비해 약간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저흡수나일론수지의 Grade로는 일반Grade, GF강화 Grade 및 Mineral Filler를 충전제로 사용한 MFGrade가 있는데 MF(무기충진제) Grade는 내열성에 있어서 GF(유리섬유)강화 Grade는 내열성 및 기계적강도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저흡수나일론 수지의 용도는 자동차분야의 Wheel Cap, Connector, Fastener, Heater Core 등인데 나일론수지에 비해 비중이 7~10%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1993/11/15 22>